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들

첫째 천사의 기별 연구



목 차

서 문 _ 3

- 제 1 과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 _ 5
- 제 2 과 **작은 책 - 다니엘서** _ 13
- 제 3 과 **하나님의 비밀** _ 21
- 제 4 과 **예언된 재림의 징조** _ 29
- 제 5 과 **세계적 재림운동** _ 37
- 제 6 과 **공중을 날아가는 첫째 천사** _ 45
- 제 7 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_ 54
- 제 8 과 **경건한 두려움** _ 63
- 제 9 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_ 72
- 제 10 과 **창조주를 경배하라** _ 81
- 제 11 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_ 90
- 제 12 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_ 98
- 제 13 과 **혼인 예복** _ 106
- 13째 안식일 특별연금 **외방선교사업** _ 115

서 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도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온전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실물, 158)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권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고 교회의 토대가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초기, 258)

여기서 말하는 “이 기별들”은 다름이 아니라, 세 천사의 기별이다. 위의 문장을 포함하는 전체 단락을 다시 읽어보자.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始終)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르었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나는 그들이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그 토대를 밟고 나섰으나 어떤 이들은 그 토대

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토대가 개선되고 완전해져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서 내려와 시험해 보고는 그것이 잘못 놓여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의 대부분의 무리가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난 자들에게 불평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축의 대가이신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 이 견고한 토대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연합하여, 눈을 하늘로 향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불평하면서 그 토대를 떠났던 자들 중 얼마는 이들의 감화를 받고 겸손히 다시 그 토대 위로 올라섰다.”(초기, 258)

세 천사의 기별은 곧 견고한 토대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첫째는 말 그대로 세 천사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온 하늘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지 주목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림하신다는 복음을 조롱하고 있었다. 기쁨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것은 속임수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희를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그 **첫째 기별**을 배척한 자들은 **둘째 기별**에서도 유익을 받을 수 없었고 저희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밤중소리에서도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두 기별**을 배척함으로 저희 이해력이 심히 어두워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런 빛을 보지 못했다.”(살아, 387)

말씀하신대로, 견고한 토대 위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구에 충만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편집자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

[연구범위]

화잇주석, 계시록 1장; 사도행적, 568~573, 581~584.

기억절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 1:1)

서론 : “계시록은 ...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주께서 친히 요한에게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려고 계획하셨다.” (화잇주석, 계 1:1-3)

머리에 무지개를 두른 천사

1. 요한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계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계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계 1:1-2)

“그리스도께서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오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

한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크신 관리자이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이다.”(화잇주석, 계 1:1-2)

2.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구름을 옷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를 두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 이 천사는 누구인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계 10:1)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화잇주석, 계 10:1-11)
“하늘에는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있는데, 이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 인간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중재자로서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과오를 범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동정의 증거로서 또한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 위에 돌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영적 선물 3권, 75)

언약의 무지개

3. 무지개는 노아홍수 이후 생겨난 것으로서,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무지개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창 9:11-15)

계 4:3; 10:1 비교.

“후세의 자손들이 구름에 걸린 이 찬란한 무지개를 보고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아치의 유래를 물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옛적 백성들이 온갖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으며,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이 무지개를 만드사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표로서 구름에 매어 달았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계획하셨다. 구름에 걸린 이 상징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데, 이 무지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당신의 자비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잊으실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당신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영적 선물 3권, 74~75)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돌보시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유한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그의 온정, 그리고 ‘내가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를 보고 너를 기억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비길데 없는 겸손을 이해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운가!”(화잇주석, 창 9:12)

4.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계 4:3)

“궁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시 85:10)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항구적인 증언이다. 진리의 교사들이여, 율법이 백성들 앞에 제시될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 곧 언약의 무지개가 둘러 보좌를 가리

켜 보이라. 율법의 영광은 그리스도이다. 그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자비와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의와 진리가 서로 입 맞추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라.”(화잇주석, 요 3:16)

힘센 천사로 묘사된 그리스도

5.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묘사했는가?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분께서 땅에 계셨을 때와 왜 크게 다른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계 1:13-15)

단 7:9, 10; 10:5, 6 비교.

“이 사랑하는 제자는 큰 은총을 받았다. 그는 그분의 얼굴이 고통의 핏방울에 적셔지고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신 깃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을 보았었다(사 52:14). 그는 낡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지 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군병들의 수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었다. 이제 요한은 다시 한 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허락 받았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변했는지! 주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시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시다. 주님은 하늘의 빛난 옷을 입고 계신다. …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난다.”(행적, 582)

6. 계시 중에서 요한은 힘센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를 두른 것과 함께 그 얼굴에서 어떤 광경을 보게 되었는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왜 요한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계 10:1)

마 17:2; 사 5:31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히 1:3)이신 예수님은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인자같은 이가’(계 1:13)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神性)의 빛나는 광채를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와 친숙해질 수 있게 하셨다. 죄가 사람과 창조주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후부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 이 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치료, 418-419)

구속사업에 친히 개입하심

7.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업을 위하여 친히 빛으로 개입하신 실례를 들어 보라. 그분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행 9:3-8)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찢었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행적, 115)

8. 풀무불에 던져진 히브리의 세 청년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져 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단 3:23-25)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에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선지, 508-509)

부조들을 도우셨던 그리스도

9. 부조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 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창 18:32-3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수 5:13-14)

창 18:22~31 참고.

“하늘의 두 기별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그분을 그에게 홀로 남겨 두고 떠났다.”(부조, 139)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그는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수 5:13~15, 6장, 7장)고 대답하였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부조, 487-488)

“생명의 왕은 …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고,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함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함이다.”(화이트주석, 수 5:13, 14)

10.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히 13:5 참고.

“그분은 그들을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엡 6:12)과 싸워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 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다.”(행적, 29)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승리를 위해 앞으로, 위로 향해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고 계신다. 한 분이 우리

중에 계신데, 그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은 우리를 확실한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분께서는 끝까지 지키실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업을 그분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며 살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를 향하여 성취될 것이다.”(2증언, 122)

[상고할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사 33:15, 16; 41:17).”(화잇주석, 합 3:17, 18)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단의 울무에서 놓여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자비를 베푸사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사 41:10,13,14).”(화잇주석, 사 48:9, 11)

작은 책 - 다니엘서

[연구범위]

목사와 복음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3~115; 화잇주석, 계시록 10장

기억절 :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단 12:9-10)

서론 :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화잇주석, 계 10:1-11)

다니엘서

1. 마지막 때를 위하여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

계 22:10 비교.

.....

“과거에 교사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라고 선언해 왔으며,

백성들은 이 책들로부터 돌아섰다. 그 일견 신비해 보이는 휘장은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 올리는 것을 막았으며,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말씀의 이 부분으로부터 거두워진 바 되었다.”(목사, 113)

2. 다니엘서의 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단 12:9)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계 10:2)

“계시록 가운데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께서는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서를 펴놓았으므로 다니엘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된 것이다. 다니엘은 예언들이 성취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크고 엄숙한 사건들에 대해 계시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 주신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2기별, 109)

“지금 다니엘서는 인봉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져야만 하였다.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2기별, 105)

땅과 바다를 밟고선 천사

3. 하늘에서 내려와 땅과 바다를 밟고선 천사는 누구인가? 그 천사의 활동 범위는 어디인가?

“...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계 10:2)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시 95:5.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오른 발은 바다에, 왼 발은 육지에 둔 것은 사단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화잇주석, 계 10:1-11)

4. 땅과 바다를 밟고선 천사의 모습에서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의 계시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전파되어야 하는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시 147:15)
롬 10:17~18.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또 다른 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별이 먼 나라에 전파될 것과 바다를 횡단하고 바다의 섬들이 우리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의 선포를 듣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2기별 107-108)

큰 소리로 외침

5. 사자가 부르짖는 것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로 묘사되었다. 왜 이 기별이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전파되어야 하는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계 10: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사 55:3)
사 55:6~7.

“싸움은 한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거세어지

고 더욱 결정적인 양상을 띠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때에 흑암의 권세자들의 능수능란한 솜씨는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사단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온 세상을 속일 것이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교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센 천사는 관심을 끌 것이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그는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화잇주석, 계 10:1-11)

6. 우리는 어떤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있는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히 3:15)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히 4:1)

히 12:25.

“실행하는 것보다는 자백하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와 연합하여 주를 섬기겠다고 서약하고 그후 곧 그들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이득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불경건한 자들과 연합한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히 12:25 인용]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특권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선물들을 향상시킬 가장 엄숙한 책임아래 두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요구에 순복할 가장 열렬한 결심으로 채워야 한다. 자부하거나 참람된 자가 되지 말라.”(영문시조, 1881.6.9.)

일곱 우레

7.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사건(역사)를 암시하고 있는가?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

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계 10:4)

“이 후에 일곱 우리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리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화이트주석, 계 10:1-11)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의 도표를 가리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그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한편 어떤 잘못된 부분은 그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 없었다.”(초기, 74)

8. **힘센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였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계 10:5-6)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때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포고하고 있는 천사가 대표하는 것이다.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 때는 이 세계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관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적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에까지 이른다.”(화이트주석, 계 10:1-11)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1기별, 188)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초기, 75)

잘못된 결론

9. 다니엘서의 어떤 예언이 1844년 가을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언적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 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민 14:34)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일 일이 일 년이니라”(겔 4:6)

단 8:14.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1844년 가을로 마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림신자들 역시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이란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쟁투, 409)

“2,300년의 첫 부분인 483년, 곧 69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시대까지 미칠 것이었다. 그런데 기원후 27년에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다.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가 서기 34년이였다. 이로써 2,300년의 첫째 부분인 490년이 지나갔으므로 1810년이 남게 된다.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연장하면

1844년이 된다. 천사는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였다. 그 예언 중에 밝히 기록된 모든 사건은 지정된 때에 의심할 여지없이 다 성취되었다.”(쟁투, 410)

10.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이 1844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주 거론되었는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요 16:12)

.....

“그런데 지정된 시기가 지나갔으나 주님께서는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착오가 없으므로 그들의 예언 해석에 반드시 잘못이 있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쟁투, 40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이 거짓된 광신 소동으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암흑과 실망으로 끝을 맺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의심과 불확실한 상태에 묻혀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2,300주야의 예언의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 운동의 확실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써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들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쟁투, 410~411)

[상고할 말씀]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전자는 봉함되었고, 후자는 봉함되지 않았다. 요한은 우리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리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때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포고하고 있는 천사가 대표하는 것이다.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때는 이 세계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적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에까지 이른다.”(화이트주석, 계 10:1~11)

하나님의 비밀

[연구범위]

실물교훈, 207~211; 초기문집, 13~20.

기억절 :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계 10:7)

서론: “그리스도는 여러 시대 동안 숨은 신비로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으며 우리가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느냐 하는 영원한 관심사가 내포되어 있다.”(그리스도인 교육기초, 179)

구속의 경륜

1.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취었던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6-27)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딤후 3:16)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이며,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취었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다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

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화잇주석, 롬 16:25)

2. 구속의 경륜은 언제 세워졌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보여주는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계 13:8, 킹제임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벧전 1:18-20)

엠편 1:4.

“하나님은 미래에 관해 지식을 갖고 계시며, 심지어 창세 전의 일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추려 하지 않으시고 사태가 발전하고 진전되기를 용인하신다. 그는 사물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일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을 알고 계셨다. 하늘에 있는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자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야 할 계획 그것은 신비요, 각 시대를 통하여 숨겨진 비밀이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행하여 오신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한 영원한 목적으로 한 제물이 준비되었다.”(화잇주석, 롬 16:25)

“구속은 신적 본성에 속한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창세 전에 죽음에 내어 주신 바 되었다. 죄의 존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바리에서 반사되는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쓰라린 마음으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혐오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지를 알 수 없다. 그의 영혼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를 크게 갈급해 할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목사, 264-265)

아담과 하와에게 공개하심

3. “하나님의 비밀”이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공개되었는가? 그 비밀 가운데는 어떤 희생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 3:15, 21)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 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히 2:18).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에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하였다.”(부조, 64)

4. 만세전에 세워진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 4:9)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 13:8 구역)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요 3:16)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숭경해 마지않을 것이다.”(부조, 63)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들

5.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복음)를 영접해야 할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막 2:17)

롬 3:10.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인간은 갈바리에서 값지 않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열렬한 호소 속에서 십자가는 죄인에게 온전한 속죄를 내어밀며 받으라고 초청한다.”(화이트주석, 롬 3:20-31)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조건으로 우리를 위한 대치물과 담보로서 이 희생을 받아들이셨다.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전가(轉嫁)되었다. 그 죄인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며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1기별, 215)

6. 구속의 경륜 속에서 죄인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계 1:5)

롬 6:7; 요일 1:7.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소망, 668)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분이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은 깨끗이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된다. … [엡 2:1-6 인용]”(화잇주석, 뱀후 1:4)

“믿음으로 거룩한 속성을 붙들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기도 하며 믿는다.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능력을 요청하며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다. 이것을 모든 죄인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만 하며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모본의 선물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가!”(3기별, 356)

마지막 사업

7.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재림운동을 통하여 진실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계 10:7)

단 8:14.

“하나님께서서는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 하셨다. … 많은 사람들은 이천삼백 주야의 예언의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운동의 확실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써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쟁투, 410)

8.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당신의 충성스런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에 너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6-27)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초기, 48)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찾

다.”(쟁투, 613-614)

승리한 두 무리

9. 구속의 경륜이 마치고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면, 구원 얻은 자들은 얼마나 큰 무리가 될 것인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롬 11:25-26)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계 7:9)

“빛모섬의 선지자는 새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의 각 시대를 내려다보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선지, 720-721)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騷音)이 일어날 것이다.” (쟁투, 644.)

10.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외에 또 어떤 무리들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그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계 7:4)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계 14:1)

계 15:1~3.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계 14:1).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계 22:5). …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무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환영하시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계 14:4)다.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서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행적, 590-591)

[상고할 말씀]

“그 후에 나는 달이 일곱 개 있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 날에 승천했던 예복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옮겨진 곳이 여기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요 나의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나를 수종드는 천사에게 그곳에 남아 있게 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면 십사만 사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고 말하였다.”(초기문집, 39-40).

예언된 재림의 징조

[연구범위]

각 시대의 대쟁투, 299-308, 333-334.

기억절 :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2-33).

서론 :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 버렸다. …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 버릴 그 엄숙한 날이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 놓게 하였다.”(쟁투, 309)

재림을 맞을 준비

1.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의 징조에 유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들의 왕이 오실 징조를 볼 때에는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봄에 나무들이 움트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짜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눅 21:28, 30, 31)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 버렸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쟁투, 308-309)

2. 하나님의 날에 설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계 14:6, 8, 9)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써 그들을 혼수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三重)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쟁투, 311)

예언적 징조

3. 어떤 예언적 징조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는가?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29-30)

계 6:12~13.

예언 징조	성취 날짜	증언 참조
리스본 대지진	1755년	쟁투, 304
해와 달이 어두워짐	1780년 5월 19일	쟁투, 306
유성(流星)의 큰 소나기	1833년 11월 13일	쟁투, 333

4. 여섯째 인을 뿜 때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계 6:12)

“이 징조들은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났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1755년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범위는 유럽의 많은 부분과 아프리카와 미국에까지 확대되었다. 그것은 그린랜드와 서인도제도과 마데이라도(島)와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도 감진되었다. 그것은 4백만 평방 마일의 지역에 미쳤다. 아프리카에는 유럽에서와 거의 같은 정도로 격렬한 진동이 있

었다. 알지어즈는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멀지 않은 마을, 인구 8천 내지 1만 미만 정도의 한 마을은 전부 함몰되고 말았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해안 일대에는 큰 해일이 일어나 많은 도시들이 휩쓸려 나갔고, 큰 파멸이 일어났다.”(쟁투, 304)

재림의 징조(1)

5. 리스본 대지진은 재림의 징조 중 첫번째의 징조였다. 리스본 대지진에 관하여 설명해보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 21:11)

“지진이 가장 격심했던 곳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다. 카디즈 시에는 밀려 온 파도의 높이가 60피트나 되었다고 한다. ‘포르투갈의 가장 높은 산들 중의 어떤 것들은 바로 기초부터 격렬하게 흔들렸고, 어떤 산들은 산꼭대기가 터져서 놀라운 모양으로 가까운 산골짜기로 거대한 땅 덩어리가 무너져 내려왔다. 또 그런 산들로부터 불꽃이 솟구쳐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리스본에서는 ‘우레같은 소리가 땅속에서 들려왔고, 그 후에 즉시 일어난 심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의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다. 약 6분만에 6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 바다는 처음에는 물이 나가서 모래밭이 드러났으나 잠시 후에는 보통 때의 수면보다 50피트 또는 그 이상의 높은 큰 물결이 밀려들었다.’ ‘그 큰 재난으로 리스본 시가 당한 무서운 사건들 중의 하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 만든 대리석 부두가 함몰된 일이었다. 많은 군중들은 그 부두를 파멸이 미치지 않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여 그 곳으로 몰려와 있었다. 그러나 그 부두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실은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그 뒤에 단 한 사람의 시체도 떠올라 오지 않았다.’”(쟁투, 304-305)

6. 리스본의 대지진으로 특히 어떤 건물들이 파괴되었는가? 당시 종교계의 타락상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 3:1)

“지진의 진동(震動)이 있자 곧 이어 교회당과 수도원, 거의 모든 고층 건물들은 무너져 버렸고, 시가의 건물 4분의 1 이상이 파괴되었다. 지진 후 약 두 시간 정도 지나게 되자 각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거의 3일간 견잡을 수 없이 맹렬한 불길을 뿜은 결과로 시가는 완전히 황폐케 되었다. 지진은 성일에 일어났으므로 교회와 승원들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 중에서 죽음을 모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말할 수 없었고, 아무도 우는 자가 없었다. 사실상 아무도 울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공포와 놀라움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의 얼굴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끝이 되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어머니들은 아기들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의 상(像)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당으로 피난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였으나, 성찬을 취하여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가련한 영혼들은 제단을 붙들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 성상(聖像)과 신부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파멸 속에 매몰되고 말았다. 그 무서운 날에 생명을 빼앗긴 사람은 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쟁투, 305)

재림의 징조(2)

7. 두번째 재림의 큰 징조로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막 13:24)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예언의 둘째 징조는 25년 후에 일어났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성취된 시기가 예언에서 지적한 것과 틀림없이 일치된다는 점이다. 구주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오랜 기간의 시련기 곧, 일천이백육십년간 법왕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날을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 재림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막 13:24). 일천이백육십일, 곧 일천이백육십년은 기원 1798년에 마쳤다(제15장과 제25장 참조). 박해

는 그보다 25년 전에 거의 다 끝났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박해가 끝난 뒤를 이어서 해가 어두워질 것이었다.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다.”(쟁투, 305-306)

8. 해와 달이 총담같이 어두워진 암흑일에 대하여 묘사해보라. 이 징조는 법왕권의 실제적 몰락 이후에 일어났음을 유의하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계 6:12)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이었는데, 그날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연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 하늘은 어두워졌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아홉 시 경이 되자 구름은 얇아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그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건물들, 사람의 모양 등이 모두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다란 선(線)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 버렸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저녁 아홉 시 만큼의 어두움이 되어 버렸다. …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운 생각이 차츰 사람들의 마음을 엄습하였다. 부인들은 문간에 서서 어두운 풍경을 주목하여 보았다. 농부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장사꾼들은 점포를 걸어치웠다.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하여 하학하고, 아동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왔다. 행인들은 가까운 농가로 피하여 들어갔다.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에서 그런 의문들이 새어 나왔다. 마치 태풍이 땅에 몰려올 것처럼,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보였다.

촛불을 켜다. … 아직 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다. …”(쟁투, 306-307)

재림의 징조(3)

9. 1833년 밀러는 평신도가 아닌 지도자로서 설교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교

회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처럼 밀러의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즈음 어떤 징조가 그 기별에 큰 힘을 주었는가?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마 24:29)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계 6:13)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 주기 시작한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의 유성(流星)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 ‘이 때에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현상이었으며 그것을 목격한 일부의 사람들은 매우 감탄하였고,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경악(驚愕)하였다.’ ‘그 장엄하고 찬란했던 광경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다. … 오늘날까지의 어떠한 유성우(流星雨)도 그 때와 같이 사면 팔방으로 설새없이 쏟아졌던 적은 없다. 다시 말하면 온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 두 시부터 새벽이 되기까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찬란한 빛이 번쩍이면서 온 하늘은 기이한 광경을 이루었다.’”(쟁투, 332-333)

10. 이 마지막 징조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예언된 징조 후에는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계 6:13-14)

마 24:33.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3)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성취되었다. 그 징조들이 있는 뒤에 요한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악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인자 앞에서 숨는 광경들을 보았다(계 6:12-17 참조).

별들이 떨어지는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 주는 것, 곧 ‘크고 두려운 날의 무서운 모습, 확실한 전조(前兆), 자비로운 징조’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쟁투, 334)

[상고할 말씀]

“1833년에 밀러는 그가 속하고 있던 침례교회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다. 그 교파의 많은 목사들도 그의 사업을 인정하였으므로 그는 정식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의 사업은 주로 뉴잉글랜드와 중부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여행하고 설교하였다. 처음 수년 동안 그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그 후에도 그가 초청받은 지방까지 가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비용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와 같이 그의 공중 전도는 금전상의 혜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으므로 필경 그의 재산에 무거운 부담이 되었으며,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의 재산은 차츰 줄어들어 갔다. 그는 큰 가족의 가장이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모두 검소하고 근면하였으므로, 그의 농토는 그와 그의 가족이 쓰기에 족한 소출을 내주었다.”(쟁투, 332)

세계적 재림운동

[연구범위]

각 시대의 대쟁투, 317~320, 368~374.

기억절 :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단 8:13-14)

서론 :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한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다. 그는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어린 시절에 가난과 싸웠으며, 그로 인하여 스스로 힘쓰고 극기하는 큰 교훈을 배웠다.”(쟁투, 317)

근대의 종교개혁자들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는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7)

“한 천사가 이와 같은 경고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쟁투, 355)

전도자	활동지역	증언 참고
요셉 볼프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쟁투, 357~362
라쿤자	남미	쟁투, 363
벵겔	독일	쟁투, 363
가우센	프랑스, 스위스	쟁투, 364
어린이들	스칸디나비아	쟁투, 366~367

2. 윌리엄 밀러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는가?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였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사 28:10)

사 28:13.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한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다. … 그는 비난할 여지없는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청렴하고 검소하고 관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다.”(쟁투, 317)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인류의 교훈으로 주어졌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지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모든 선입견(先入見)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관주와 성구 사전(聖句辭典)을 이용하여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써 연구하였다.”(쟁투, 319-320)

재림운동의 중심, 미국

3.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 특히 어떤 예언의 말씀들에 고무되었는가? 미국에서의 재림운동은 어떤 예언의 성취인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단 8:14)

계 14:6, 7.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는데,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象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表象), 은유(隱喩), 비유(比喩), 직유(直喩)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定義)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쟁투, 320)

“1844년 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지적해 주는 듯이 보였던 예언의 증거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기별은 이 주(州)에서 저 주로 전파됨에 따라 어디서나 큰 흥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적 기간에 대한 논증(論證)이 정확함을 확신하여 자기들의 교만한 의견들을

버리고 기꺼이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쟁투, 368)

4. 재림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기는 하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느 곳에서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는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계 12:15-16)

“일리아 밀러와 그의 동역 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위대한 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의 저서는 널리 먼 지방에까지 전해졌다. 온 세계의 어느 곳이나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멀리, 그리고 널리 전파되었다.”(쟁투, 368)

재림운동의 반응

5. 첫째 천사의 직접적인 성취를 가져온 미국에서의 재림운동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해보라. 첫째 천사는 지금도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눅 3:8)

“도처에서 엄숙한 증거의 소리가 들렸고, 죄인들을 경고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다 같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가 주어졌다. 전도자들

은 그리스도의 선구자(先驅者)침례 요한처럼 나무뿌리에 도끼를 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였다.”(쟁투, 368-369)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였다.”(쟁투, 369)

6. 수많은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듣고 재림운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어떤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이들의 경험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해보라.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행 16:30)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재림신도의 회집에 모여 왔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동기에서 각기 재림에 대한 교리를 듣고자 갈망하였다.”(쟁투, 369)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개심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초기, 232-233)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두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 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쟁투, 373)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리라

7. 그러나 1844년 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윌리엄 밀러의 기별은 그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큰 실망의 경험을 안겨주었는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3-4)

마 25:5.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처음에 2,300일이 1844년 봄에 끝날 것으로 믿었으나, 그 예언은 그 해 가을에 마칠 것을 가리키고 있다(부록 27 참조). 이점에 대한 오해는 그 해 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초래하였다.”(쟁투, 328)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당한 실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겪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쟁투, 391)

8.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퍼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계 10:8)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화이트주석, 계 10:1-11)

재림신도의 시련기

9.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예언의 말씀과 1844년 초기 재림성도들의 실망을 대조하여 설명해보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계 10:9-10)

“1844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했던 자들의 실망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것처럼 간절히 바라던 자들에게 참으로 쓰디쓴 것이었다.”(2기별, 108)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은 공포 이외의 아무 다른 동기가 없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실망하지 않노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참신자들의 슬픔을 조롱하는 첫째 무리에 속하였다.”(쟁투, 374)

10. 1844년 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실망을 맛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

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2, 44)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 두셨다. 그리하여 재림신도들은 물론이요 가장 학식이 많은 반대파의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학자들은 말하였다. ‘그대들의 예언적 기간에 대한 계산은 옳다.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밀러가 예언한 일과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회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부록 31 참조).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리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쟁투, 374)

[상고할 말씀]

“품성을 재는 표준은 임금의 계명이다. 계명은 죄를 찾아낸다. 계명에 의하여 죄를 알게 된다. 그러나 죄인은 항상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시고자 그분 자신을 낮추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에 의하여 예수께로 이끌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연구 주제인가! 천사도 이 놀라운 비밀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애쓴다. ... 신성으로 옷 입혀지고, 신성의 영광으로 둘러싸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신 그분은 사람들 앞에 높여져야 한다. 이것이 백성들 앞에 계속 제시될 때 피조물의 공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침잠할 것이다. 눈으로 그분을 쳐다볼수록, 그분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을 공부할수록, 죄는 더욱 죄되고 증오스럽게 될 것이다.”(3기별, 169)

공중을 날아가는 첫째 천사

[연구범위]

각 시대의 대쟁투, 355~374; 살아남는 이들, 356~363.

기억절 :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 14:6)

서론 :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살아, 356)

빌라델비아 교회시대의 남은 무리

1. 빌라델비아 교회시대(1833~1844년)의 남은 무리들인 삼중 기별자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 것이 예언되었으며 어떤 권고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시대의 남은 무리임을 설명해보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10,

“이 말씀은 당시(1844년) 재림선구자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적은 능력[적은 지식: 편집자 주]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재림하실 구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들은 성소진리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저들이 소망하던 바가 허지로 돌아가는 듯하였으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요한계시록 연구, 46 (우라이아 스미스 저, 왕대아 편저)

2. 빌라델비아 교회시대에 성취될 열린 문에 대하여 설명해보라. 오늘날 우리들은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계 3:8)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 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상달된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을 보았다(계 3:7, 8)”(초기, 42)

“이 열린 문을 통하여,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신 율법으로부터 비추이는 빛은, 의의 참된 표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품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과오가 없도록 할 것이다. 죄는 율법으로써 정죄된다. 우리는 죄를 떼어버려야 한다. 교만과 이기심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을 내어 쫓지 않고서는 품성 가운데서 자리를 잡을 수 없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38)

“[계 3:8 인용] 빛은 그 문에서 빛이 비쳐 나오고 있으므로, …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할 것이다. 이것이 때로는 매우 힘들고 낙망적인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때에 우리는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정복자로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각 사람의 최대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다.”(9증언, 182-183)

현대진리

3. 왜 주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6-13)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써 그들을 혼수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三重)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쟁투, 311)

4.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주어진 특별한 기별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이 시대의 현대진리는 무엇인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벧후 1:12)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오고 계신다. … 진리 곧 현대 진리를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1증언, 122)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초기, 43)

“우리가 백성들에게 전할 고귀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기별, 곧 현대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은 실로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리뷰, 1889.7.23.)

더 큰 빛이 올 것이었음

5.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함으로 초기 재림신도들은 어떤 기별을 더 크게 외쳤는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7)

“예수의 초림을 예비한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파한 자들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어 놓고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강요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의 증거는 교회의 주의를 불러일으켜 그들로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는 엄숙한 기별이 발하여 지자 그러한 교회들과 연합해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치유하는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상을 깨닫고 깊은 회심의 눈물과 심한 영혼의 번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이 외침에 합세하여 더 크게 외쳤다.”(초기, 233)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도 다니엘서 8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근거로 기별을 전하면서도 재림 전에 하여야 할 다른 기별이 그 같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쟁투, 353)

6. 1844년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실망하였으나, 충실한 소수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잠 4:18)

“큰 실망기 이후에 전심으로 말씀을 탐구하는 자들이 적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실망에 빠지거나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부인하려 들지 않았다. 이러한 진리들에 대하여 일일이 깨닫게 되었으며 저들의 가장 신성한 기억력과 공감의 서로 어울리게 되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저들의 성정과 인간적인 관심이 그리스도의 것과 철저히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리는 그 단순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보임으로 빛을 발하였으며 권세로 그 위엄을 갖추었고 실망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보증을 얻게 되었다.”(2기별, 109-110)

실망이 허락됨

7.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도 어떤 실망을 당했는가? 1844년 재림선구자들이 경험한 실망과 비교해보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눅 24:21)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 1:6-7)

“제자들이 70주일의 끝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처럼 재림신자들도 2,300주야가 마칠 때에 일어날 사건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 두 경우는 다 같이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반적인 오류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고집하므로 생긴 일이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다 같이 자기들의 기별을 오해하므로 실망을 당하였다.”(쟁 투, 353)

8. 왜 하나님께서는 재림성도들에게 그렇게 큰 실망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 두셨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자들은 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시기를 반대하는 최고의 학자들도 역시 그것을 들추어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낙망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갔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던 자들은 용기를 잃고 슬픔에 잠겼고, 예수의 오심을 사 모하지는 않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그가 기다리던 정한 때에 오시지 않자 모두 기뻐하였다.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고 생활을 정결케 하지 못하였다. 정한 때가 지나가자 그러한 사람

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드러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이었다. 그들은 먼저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한 자들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비웃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시련의 때에 물러서고 돌아서는 자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그분의 지혜임을 보았다.” (초기, 235-236)

조사심판

9. 첫째 천사가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가? 그 심판은 오늘날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7)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단 7:9-10)

단 7:22, 26; 행 3:19.

.....

“[단 7:13, 14 인용]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에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 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쟁투, 480)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쟁투, 486)

10.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가 조사심판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 심판이 끝나면 어떤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마 13:47-49)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계 14:14-16)

마 22:10-11.

“인자의 재림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 앞에 항상 제시해야 할 놀라운 주제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설교에서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 영원한 실재가 정신적 안목에 언제나 머물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세상에 대한 매력은 사실 그대로 무익한 허영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허영, 영광, 재물, 명예, 쾌락 등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들이요 나그네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실제적인 생활에 적응한다면 얼마나 활기찬 행동이 이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킬 것인가! 또한 얼마나 서로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화된 생애를 살려고 얼마나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또한 영원한 보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을 얼마나 확실히 그어 놓았을 것인가!”(전도, 220)

[상고할 말씀]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속에서 행한 것이 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이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또한 그 범행자 외는 그 악을 추호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쟁투, 486)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연구범위]

각 시대의 대쟁투, 263, 264, 379; 가려뽑은 기별 2권, 104~106.

기억절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서론: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며 인간의 행복과 복리에 긴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그리스도인 교육기초, 186)

오직 하나뿐인 참된 복음

1.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은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롬 1:16~17.

“구약과 신약 사이의 대립,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간의 대립, 유대인의 요구 사항과 그리스도인의 제도의 요구 사항과의 대립, 등의 대립이 있다고 흔히들 주장하지만 그런 대립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앞 시대에 구원 받은 모든 영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과 꼭 같은 이치이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복음의 약속은 에덴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주어진 것이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전파되었고, 히브리인들도 다같은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화잇주석, 행 15:11)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시대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 제도의 기초요 중심이셨다.”(부조, 366)

2.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 13:8 킹제임스)이 되시는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벧전 1:18-20)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 13:8 영문)이기 때문이었다.”(화잇주석, 속 6:13)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화잇주석, 창 3:15)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서 말 씀하시기를 ‘나로 그 형벌을 받게 해 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소서’라고 하셨다.”(화잇주석, 창 3:15)

최초의 복음

3. 복음은 범죄한 인류의 첫 조상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순결무구의 행복한 상태에서 떠나 죄인들이 되었을 때, 타락한 인류는 단 한 줄기의 희망도 없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죄짐을 지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땅과 사람에게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소망이 있다는 약속도 아울러 주어졌다. 암울함과 흑암이 죽음의 장막처럼 드리워져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였지만 구속주의 약속 곧 소망의 별빛이 그 어두운 미래를 비추어 주었다. 복음은 최초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담에게 전파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었고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화잇주석, 창 3:15)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쟁투, 506)

4. 어린양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제도에서 아벨은 어떤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히 11:4)

“아벨은 희생 제물 가운데 상징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가인은 희생 제물의 필요에 관하여 믿지 않는 자였다.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식별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꼭 같이 전하여졌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인 어린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1기별, 231)

“십자가에 달리시어 구주되신,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신약이 능력이 드러난 복음인 것처럼 구약도 예표와 그림자 속에 있는 복음임을 백성들 앞에 보여 주어야 한다. … 신약은 단지 구약의 발전이며 전개인 것이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6증언, 392)

부조들에게 전해진 복음

5. 우리는 왜 에녹과 노아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 11:5)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

창 5:24.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그리스도의 대표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녹도 그러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러다가 사라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

에녹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은 지금도 그러하시듯 그 때에도 빛이셨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교사가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아와 에녹이 그리스도인이었

기 때문이다.”(6증언, 392)

6. 아브라함, 야곱,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던 여호와에 관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창 22:8-10, 13)

히 11:24~26.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인류의 구주이셨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기별은 아담, 셋, 에녹, 므두셀라, 노아로 말미암아 전해졌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에서 복음의 기별을 전했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신실한 주의 사자들이 장차 오실 분을 선포하였다.”(실물, 126)

“우리에게 허락된 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로 하여금, 고대 세계 사람들이 오실 구세주를 가리키던 예표들을 통하여 받았던 것을 멸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제도에 빛을 비취 주고 의문의 울법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고 태초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 더 분명해 질 때에 하나님의 선민을 취급하시는 그분의 품성과 목적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추가로 받는 모든 새로운 광선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의 경륜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부조, 367)

더 밝게 전개된 복음

7. 제사제도에서 복음은 더욱 밝게 전개되었다. 그 복음의 실체는 누구시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히 10:1)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7)

요 5:39, 46; 사 9:6.

“유대인의 모든 제도와 제사 제도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복음, 118)

“부조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희생 제물들은 구주의 오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행해진 성소 봉사의 모든 의식이 그러하였다. 성막과 후에 그것을 대신한 성소 봉사에서 백성들은 날마다 예표와 그림자라는 방법으로 구주시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된 큰 진리를 배웠고 매년 한 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과 우주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최후의 사건으로 이끌어 갔다. 모세의 의문의 희생과 제물도 언제나 더 나은 예배 즉 하늘의 것을 지적하였다.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던 세상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유’이며, 그 두 거룩한 곳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니 이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는 오늘도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히 9:9, 23, 8:2).”(선지, 684)

8.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데 실패했다. 이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히 4:1-2)

히 3:14~19.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예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돌이켜 보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처럼 많은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를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불평한 것에 대해 놀란다. 그들은 그토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작은 일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도 시험에 견디지 못한다. … 그들은 그저 예상되는 필요 때문에 불신을 표명하며 낙담하고 우울에 빠지는 것이다. 어떤 이는 혹시 그들이 궁핍해져서 저희 자녀들이 고생하게 되거나 앓을까 하여 항상 고민 속에 빠져 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곤궁한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저희 사랑과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은 이런 시련을 겁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해 원망한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리만큼 순결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입증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강하고 활기 있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살아, 128-129)

영원한 복음 - 그리스도

9.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영원한 복음)를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어떤 비유에서 볼 수 있는가?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마 25:10-12)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도다.

길르앗에는 유행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인고”(렘 8:20, 22)

눅 13:24~25.

“심판의 날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갈바리에서 이루어진 희생의 의미가 충분히 알려진다. 그들은 그들이 충실해지기를 거절하므로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고상하고 순결한 교제를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마지막 초청은 끝났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렘 8:20)라는 통곡이 들린다.”(7증언, 16)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의 수는 심히 적었다. 자비의 아름다운 음성이 사라지자 놀라움과 공포가 악한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매우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던 자들이 이곳저곳,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방황하며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천사가 말하였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저희는 어떠한 것이라도 바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도무지 얻지 못하여 영원히 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살아, 404-405)

10. 복음의 영광은 세상에서 어떻게 밝히 드러날 것인가? 복음의 영광은 누구의 형상을 재현시키는 것인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계 18:1)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마 24:14.

.....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1기별, 231)

“복음의 영광은 자비를 끊임없이 나타냄으로 타락한 인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칙에 기초되어 있다.”(3보감, 147)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공훈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실물, 415)

[상고할 말씀]

“사랑은 우리를 청하사 하늘 성문으로 들어오라 하시고, 공의는 희생되어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왕의 가족의 일원, 즉 하늘 왕의 자녀가 누릴 충만한 특권들을 모두 다 준다.

만약 우리의 품성에 흠이 있으면,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어 놓으신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의가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순결과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그 문을 열어서 각자의 품성과는 상관없이 다 들어가게 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하늘에는 사단이 추방되기 전보다도 더욱 악한 상태가 되어 불만과 반역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평화와 행복과 하늘의 조화는 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는 환경적 변화가 인간의 품성을 바꾸어 놓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그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꼴지워진 결과이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었던 사람들일 것이다.”(화이트주석, 롬 3:24-26)

경건한 두려움

[연구범위]

시대의 소망, 158~163; 가려뽑은 기별 1권, 122~123.

기억절 :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사 8:13)

서론 :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될 것이다. ...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기별에 즐거이 응답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계 14:6, 7, 12) 지킨 자들로 인정 받을 것이다.”(선지, 299-300)

보좌로 나아감

1. 첫째 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이 요구되는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계 14:7)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시 31:19-20)

“사람들은 가족이나 백성들의 집회 시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대신에 존경심 없이 나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자부심으로 기도집회에 나오며 또한 주님의 손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마치 주님께 무엇인가 보고를 드려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해 또한 음식과 의복, 그리고 물질적 영적 축복이 모두 주님께 의존되고 있음을 깨닫지 않고 겸손한 탄원자로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는다.”(리뷰, 1895.5.28.)

2.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무엇인가?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벧전 2:17)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함을 깨닫는 자가 극히 드물다. 천사들은 보좌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지만, 죄로 더러워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주의하게 달려간다. 거룩한 천사들이 존경심과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함을 기억하라.”(리뷰, 1895.5.28.)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은 두려워 떠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피하게 함으로써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무서운 위협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고 그의 말씀 중에 단순히 기록해 두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심판을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화잇주석, 고후 5:11)

경건한 두려움

3. 이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1-5)

“이 시대의 큰 위험이며 또한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많은 불행을 안겨주는 것은 격렬히 증가하는 세속화이다. 세속적인 것을 찾기에 분주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 그분의 성호에 대한 존경심, 또한 거룩함에 대한 생각은 사라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구를 알리시지만, 인간은 그것들에 유의하지 않는다. 신앙의 원칙이 가족에게서 소멸된다.”(리뷰, 1885.2.24.)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존경심과 경건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겸손과 경외심과 거룩한 중재자인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저희 창조주께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선지, 48)

4.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발하도록 명하신 경외심은 어떤 것인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2-13)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히 4:1)는 경건한 경외심이 보인다. 이러한 성화된 두려움은 전적으로 합당하다. 노예와 같은 겁이 많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리

스도께서 시인하지 않으실 어떤 일을 행함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런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조절한다. 그것을 느끼는 자들은 그들 심령 속에 주님을 거룩하게 한다. 그들은 겸비하게 이끄는 존경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채찍질을 예상하며 살아가는 노예의 공포와는 매우 다르다. 이런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께 확고히 매달리도록 인도한다.”(영문 시조, 1898.9.22.)

불경건한 두려움

5.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일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단 5:1, 4-6)

“시끄럽던 주연이 조용해지는 한편 남녀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천천히 써 내려가는 손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권능이 도전을 받고 그 이름이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자,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앞에서 왕은 공포심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은 불경하게도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다.”(선지, 524-527)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고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들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한 운명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법궤를 열어 보고자 했을 때, 그들의 불경한 행동은 두드러지게 형벌을 받았다.”(치료 434-436).

6.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불경의 결과는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니라 하시니라”(마 21:12-13)

눅 21:22.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소망, 161)

불경을 예방함

7. 불경은 얼마나 두려운 죄이며,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인가? 불경건에는 어떤 말과 행동들이 포함되는가?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유 1:15)

롬 1:18.

“의심을 걸어 놓기 위한 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포착하도록 마음을 길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도록 암시하는 자들은 언제나

의심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 주는 일에서 생기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비평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업과 위치를 비판하고, 그들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의 각 분야를 비난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와 결점을 먹고 살 것이다. 천사는 말하였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시고 그들의 불경한 잔치석을 갑자기 덮치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2보감, 300)

8. 불경건한 생애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5)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벰전 4:18)

벰후 2:5, 6; 벰후 3:7.

“어떤 이들은 천성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과 동기를 면밀히 살피는 습관을 장려하고 계발해야 하며 특히 신약적 행위와 은밀한 기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그들은 자주 의심과 불신을 이야기하고, 무신론적 느낌과 겪었던 놀라운 갈등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담하고 있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과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용기에 지장을 줄 만큼, 그래서 의심하는 편에 선 것에 특별한 덕이 있는 것처럼 만들 정도로 좌절시키는 영향력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한다.”(2증언, 513)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금지된 땅에 발을 들여놓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천박하고 불경한 쓸 데 없는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흔히 이 신앙심이 없는 방문객들의 영향과 감화는 집안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 지속되는 인상들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끼쳐진 감화는 마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받은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다.”(화잇주석, 샷 2:2)

언행들을 조심함

9.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제를 참소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참소하는 일은 얼마나 불경스런 죄인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계 12:10)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잠 25:23)

시 15:1~5.

“그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참소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악하고 음험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게 한다. 그들은 사단의 훈련을 받은 정탐꾼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불화하게 하는 것이며, 형제들 사이를 이간해서 원통한 마음을 갖게 하는 비난의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사단을 위해서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말쟁이들을 배치하는 것이며, 악한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불화를 조장할 만한 것을 말함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화잇주석, 사 8:12)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그들의 매일의 음식을 의심과 의문으로 양념하는가. 그들은 친구들의 품성을 썰어서 맛있는 후식으로 내놓는다. 아까운 비방의 부스러기들은 어른들뿐 아니라 자녀들도 동참하여 비평할 수 있게끔 식탁을 따라 돌려진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는 훼손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비방하는 자들에 의해 모욕과 능욕을 당하신다.”(1보감, 490)

10.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이런 참소와 비난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속 3:1)

속 3:2~5.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나 비난을 당할 때나 간에 흐트러짐이 조금도 없는 성실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 밖에 없는 안전한 길이다. … 지상의 모든 것이 그들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신 일에 인을 치신다. 그들의 동료들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약하고, 사나이답지 못하고, 그런 직무에 적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그들을 매우 다르게 평가하신다.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실상 무지한 사람들이다. 비방과 욕설의 폭풍이 청렴결백한 사람들을 평생 뒤따라 다니고 무덤까지 휩쓸지 몰라도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화잇주석, 단 6:10)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하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오, 이 말씀이, 다른 이의 결점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깊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것이 이 회중에 많은 이들의 연약함이며 둘러싼 죄다. 그리고 우리의 큰 염원은 주께서 그대들을 제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악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을 비방한 그 비방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떨어진다.”(1설교, 360)

[상고할 말씀]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약 4:11). … 누구든지

스스로 재판자 직분을 취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서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 대하여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 또한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진 사람들을 위하여 교훈하는 가운데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딤후 5:19)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와 교사의 중책을 맡기신 그분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종들을 취급한 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지우신 사람들에게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책이 되어야 한다.”(부조, 385~386)

“하나님의 대리자들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들에게 나타낸 존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선지, 237)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연구범위]

부조와 선지자, 327~330; 산상보훈, 38~44.

기억절 :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출 15:11)

서론 :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 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계발시켜 준다. 그분의 영광의 빛인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취나와야 한다.” (실물, 414)

하나님께 영광을

1.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강조된 두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돌려져야 하는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계 14:7)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시 115:1).

“흰 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여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시 115:1).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에 가득 담긴 정신이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어야 할 정신이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룩하셨다”(부조 289).

2.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계 15:4)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요 15:5~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화잇주석, 계 14:7)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그는 더욱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며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의의 태양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소망, 251)

영광이 나타남

3.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출 33:18-19)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출 34:6-7)

출 33:20~22.

.....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완전함과 그분의 형상,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과 하나이신 분의 고통과 극기와 희생을 보았다. 구름기둥으로 가리우신 영광은 희생제물로 표상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모세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의 가장 열렬한 탄원 곧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소서’에 대한 응답으로 미래가 그에게 펼쳐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형이 원형과 마주치는 광경이 그에게 보여졌다. 그는 자비와 공의가 서로 결합되어 있고 또한 비할 데 없이 나타난 사랑을 보았다.”(영문시조, 1880.6.17.)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거할 곳을 만들어 주길 원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품성의 영광스러운 전형을 보여 주셨다. 이 품성의 전형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중에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출 34:6)하고 반포하신 때에 그들에게 보여졌다.”(교육, 35)

4. 모세는 어떤 환경과 조건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가? 이

모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출 33:21-23)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6)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바위틈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을 때이다.”(보훈, 26)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죄이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분의 말씀을 비추고 천연계에서 반사될 때, 그분에 대하여 점점 더 완전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출 34:6).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정신과 마음과 심령은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치료, 464-465)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5.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8-9)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불붙은 가시덤불은 하나님을 나타내었

다. 신성(神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표상은 별로 주목을 끌만한 것이 못 되는 평범한 덩불이었다. 이 가운데 무한하신 분께서 감추어져 있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능히 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심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엄이 가리워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視力)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소망, 23)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다. … 이 품성은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범으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바라보심으로 이 품성을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 이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131)

6.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요 8:31~32; 16:13(상단), 14.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 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쟁투, 597)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

지게 한다.”(소망, 671)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소망, 279)

매일의 변화

7.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에 관해 이야기함으로, 그분의 품성의 매력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품성이며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행되는 정결의 사업이 있음을 알게 된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37)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행적, 558)

8. 무엇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인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합 2:14, 킹 제임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써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潮流)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실물, 420)

우리의 의무

9. 오늘날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림직전에 이 땅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사 60:1-2)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취 주어야 한다.”(실물, 415)

“신앙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 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실물, 414)

10.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때, 이 땅에는 어떤 무리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때이 세상은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1, 4)

사 40:5; 61:3.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선지, 188-189)

“ 여호와께서 선언하시기를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고 하셨다(민 14:20, 21).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한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과 인자하심과 부드러운 사랑이 온 인류에게 나타날 것이었다. … 하나님께서 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당신의 영광이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이 만민 중에’(시 96:3)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선지, 313)

[상고할 말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오늘날 크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출 33:18, 1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이다. ‘너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함으로 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지 않았는가? 내가 나의 구원의 오른팔로 너를 구원하고 홍해 가운데 마른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너는 밤에는 불기둥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에서 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는가? 내가 너에게 아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남을 바라는 그의 소망에 불을 붙인 것뿐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주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인정하셨는 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 곧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심령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영문시조, 1892.10.17.)

창조주를 경배하라

[연구범위]

치료봉사, 409~418; 선지자와 왕, 183~189.

기억절 :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7)

서론 :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 준다. 그 계명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 준다”(쟁투, 437)

참된 경배

1.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이유를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찾아보라.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7)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 95:6)
시 100:3; 왕상 18:21.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던 그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쟁투, 379)

2.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 경배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편만해 있는가? 참신과 거짓 신들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차이는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지요 사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렘 10:10-11)

롬 1:20~25.

“인간이 배워야 될 가장 어렵고 가장 굴욕적인 교과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할 때 인간은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과 천연계를 정확하게 읽는 데에는 인간의 노력이 틀림없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죄는 인간의 시력을 어둡게 하였고, 인간을 저 혼자 내버려 두면 자연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연을 하나님보다 우위에다 올려놓게 된다. 인간은 자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연을 숭배하려고 제단을 세웠던 아텐 사람들이 살던 그때나 오늘날에나 꼭 같은 위치에 계신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 앞에 그들이 우상 숭배와 대조를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제시하였다. [행 17:22-29 인용]”(화잇주석, 롬 1:20-25)

“영적 암흑과 침울의 짙은 구름이 세상을 덮어 씌웠으므로 …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원수가 쌓아올린 왜곡된 진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특별한 속성으로 가리워졌고 그들이 거짓 신을 경배하도록 속임을 당했다.”(그리스도인 교육기초, 176-177)

창조주께로 인도함

3.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짓 경배가 가장 심각했던 때를 구약 역사에서 찾아 보라. 그 시대와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왕상 16:30-31, 33)

왕상 18:21.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이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죄된 성향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 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인간을 높이게 된다.

우리 시대에 성행하는 정신은 불성실과 배도의 정신이다. 곧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므로 스스로 빛을 발하노라고 공언하나 실제로는 가장 참람되어 행하는 정신이다. 인간의 이론은 높임을 받아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진다.”(선지, 177-178)

4.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십계명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 11)

출 31:15~17.

“이교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생존을 그분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이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장자요’(렘 10:10-12, 14-16)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장자를 지적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다라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부조, 336)

투쟁의 근본

5. 첫째 천사는 참된 경배를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단은 참된 경배에서 떠나가도록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살후 2:10, 11)

“진리를 거절함으로 사람들은 그 진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쟁투, 583)

“땅에 속한 한 세력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진리를 유린하는 한편, 위에 속한 한 능력은 충

성되고 율법을 높이며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받드는 자의 마음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따라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복음, 161)

6. 참된 경배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

.....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쟁투, 436)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이끌어 작은 죄를 범하게 하고, 조그마한 방종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명백히 언급된 하나님의 요구를 조금 탈선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큰 죄악을 보고는 두려워 움추리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죄를 범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지만 이 작은 죄들이 영혼의 경건 생활을 잠식하고 있다. ... 우리는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지를 받기 위함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힘을 얻기 위함이다.”(화이트주석, 삼상 15:17)

마지막 대쟁투

7.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 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피
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
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 7:25)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부조, 69)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끈질기고 굴함이 없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자신
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므
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데 성
공하였다.”(2기별, 107)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위한 저들의 관심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될 것인데 이는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표징이며 인간의
경의와 존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악인
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헐어 버리고 로마의 제도를 높이려는 저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별될 것이다. 논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계
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두 개의 큰 부류로 나누일 것이다.”(2기별, 55)

8. 마지막 대쟁투의 계쟁점은 무엇이 될 것인가? 사단이 넷째 계명을 변경 시키려는 이유를 설명해보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
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5)

계 13:12.

“안식일 문제는 전 세계가 참여할 최후의 투쟁의 정점이 될 것이다.”(6증언,
352)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교
한, 타락한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계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

신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 내시기 때문이다.”(사건, 124)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 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 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간의 싸움, 성경에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에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쟁투, 582)

두 부류

9.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 사이에 곧 어떤 시험이 오게 될 것인가?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8)

계 13:14, 16.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의하여 특별히 구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표가 되고, 그분께서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파괴하고 로마교의 제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으로 구별될 것이다. 쟁투의 계쟁점에서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다.”(9증언, 16)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쟁투, 450)

10.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할 때, 이 지상에는 어떤 무리도 있을 것인가? 그 무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계 14:1)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4-5)

요일 5:2.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사 10:20),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기별에 즐거이 응답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희를 세상에 묶어 두는 모든 우상에서 떠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얽매는 것으로부터 놓여나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계 14:6, 7, 12) 지킨 자들로 인정받을 것이다.”(선지, 299~300)

“겉보기에는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죄가 있지만, 그 선지자가 본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한 무리이다. 그는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였다.”(화잇주석, 계 14:6-12)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선지, 188)

[상고할 말씀]

“끝이 가까이 이르러 올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증언들은 보다 결정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매우 오랫동안 최상권을 누리온 오류와 압박의 조직체들 위에 빛을 비추일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보내셔서 기독교를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려 하신다. 현대진리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지혜 위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서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책들 속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흑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사람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빛을 비추는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되 분명한 빛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게 해야 한다.”(화잇주석, 사 58:12-14)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연구범위]

각 시대의 대쟁투, 409~422; 부조와 선지자, 355~358.

기억절 :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단 8:14)

서론 : “성소 문제는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줌으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 주었다.”(쟁투, 423)

재림신앙의 기초

1. 초기 재림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2,300주야와 성소정결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단 8:14)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온 것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단 8:14)고 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말씀이 되어 왔다. 이 예언은 무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표

어처럼 되풀이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1844년 가을로 마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림신자들 역시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이란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쟁투, 409)

2. 1844년의 대 실망 후에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은 어떤 진리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는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히 9:1~5, 8.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써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들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성경에는 이 세상이 곧 성소라고 하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소 문제에 관한 설명, 곧 그 본질과 위치와 봉사 등에 관한 설명이 너무도 충분하고 명백하게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증가되어 있으므로 그 문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쟁투, 41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實體)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다.”(쟁투, 413-414)

성소에 관한 새로운 빛

3.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은 성소에 관한 어떤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는가? 신약성경에 언급된 성소는 지상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계 11:19)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계 8:3)

계 4:2.

“이와 같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존재에 대하여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모세는 자기에게 보여진 식양(式樣)을 따라 지상 성소를 지었다. 바울은 그 식양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고 가르쳐 준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한다.”(쟁투, 415)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므로 거기 말한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쟁투, 417)

4. 아울러 우리는 하늘 성소의 정결에 관하여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히 9:22-23)

히 12:24.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피로써 하는데, 먼저 것은 짐승의 피로 할 것이요,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피를 흘림

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한다.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쟁투, 417-418)

지상 성소의 정결

5. 모세가 세운 지상 성소에서의 매일의 봉사는 어떻게 드러졌는가? 표상적으로 죄는 어떻게 성소로 옮겨졌는가?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민 28:3-4)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레 4:4-6)

레 4:14~17.

“매일의 봉사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와 금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일과 개인들의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로 구성되어 있었다.”(부조, 352)

“죄를 누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 17:11).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쟁투, 418)

6. 대제사장은 지상 성소에서 1년 1차씩 어떤 봉사를 하였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피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레 23:27)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뿔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레 16:7-8)

레 16:15~22.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제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레 16:17)라고 하셨다.”(부조, 355)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일 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뿔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레 16:8)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뿔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또한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려져야 하였다.”(쟁투, 419)

하늘 성소의 정결

7.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으며 하늘 성소 어디에서 봉사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1-12)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히 9:24)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가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쟁투, 421)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 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부조, 357)

8. 지상 성소의 모형적 봉사에서 1년 1차씩 대 속죄 사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2,300주야(2,300년)의 예언적 기간이 마치는 때에 하늘 원형적 봉사에서 무슨 사업이 시작될 것이었는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 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히 9:7)

“모형적 봉사에서 일 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쟁투, 421)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계 20:12)을 것이다. 그 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부조, 357-358)

죄의 도말

9. 무엇이 성소를 더럽히는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늘 성소를 더럽힐 수 있는지 설명해보라. 하늘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락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레 20:2-3)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민 19:20)

계 20:12.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 진다.”(쟁투, 482)

“우리는 악을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만일 이러한 능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1기별, 220)

10. 하늘 성소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쟁투, 421-422)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쟁투, 483)

[상고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이는 사랑의 원칙이 그들 심령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들 자신의 과오와 결함들에 눈을 감고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반드시 개혁이 있어야 한다. 진리의 보습이 우리의 교만한 심령 속 깊이까지 갈아엎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성질의 뗏장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과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질 수 있다. 시간은 속히 지나가고 있으며 모든 일은 곧 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도말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49)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연구범위]

각 시대의 대쟁투, 486~491; 교회증언 4권, 384~387.

기억절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계 14:7)

서론 :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준다.”(쟁투, 435)

조사심판

1. 성경에는 조사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마 22:11-12)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계 11:18; 22:11, 12.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실’(계 22:12)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실물, 310)

2. 왜 조사심판이 요구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겔 18:24)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가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 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 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출 32:33)고 선언하셨다.”(쟁투, 482-483)

마음의 정결이 요구됨

3.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사람의 생애가 선악 간에 조사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권면에 유의해야 하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학 1:5)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라고 하신다. 그대가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척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척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 책에 사신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우리가 보통 하는 일과 집안일들 속으로 모셔 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 곧 모든 잡담과 별 유익이 없는 방문 등을 뒤에다 내어 버리고 우리의 몸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종들로 그분께 바치기를 원한다.”(화이트주석, 계 11:1)

4.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37)

하나님의 집에서

5. 조사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벧전 4:17)

겔 33:12, 13, 18.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쟁투, 480)

“천사들은 각 사람의 행위를 충실하게 기록한다. 그리하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내릴 때,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선고가 그의 이름 곁에 기록된다. 천사들은, 성실하지 못한 종들을 아끼지 말고 살육의 때에 죽이라는 임무를 받는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들은 빼앗긴다. 그 때에, 그들의 세상, 재물은 사라져 버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들이 성실했을 것 같으면 얻을 수 있었던 면류관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끊임없이 사용한 자들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 온 각 사람은 영광 가운데 그들의 면류관에 별들을 더하고, 그들의 영원한 상급을 증진시키게 된다.”(1증언, 198)

6. 조사심판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살아있는 자들에게까지 이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경고를 명심해야 하는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막 13:33)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계 3:3)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 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막 13:33).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쟁투, 490)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쓴 어떤 인간의 입술에도 그런 기별을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 총회에서 숨기기로 한 것을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으실 것이다.”(1기별, 192)

“그대들 각자는 매일매일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 매일의 경험은 한번밖에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심판석에 서서 기록책이 펼쳐질 때,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금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원고철 13권, 156)

은혜의 문

7. 무엇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가 조사받게 되는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 2: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약 2:12)

“하나님은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쟁투, 482)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실물, 315)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 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실문, 316)

8.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

고후 13:5, 6.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긴요하다.”(쟁투, 489)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쟁투, 490)

경고와 약속

9. 우리는 어떤 경고에 유의해야 하는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해지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악한 정

욕을 극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홀로 있게 버려 두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일을 하도록 지나쳐 버려지고, 그들 자신의 굴복되지 않은 죄악적 기질을 가지고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도록 버려진다.”(1증언, 187)

10. 구원을 얻원하는 자들은 어떤 약속으로 격려를 받아야 하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고후 12:9(상단).

“아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어’라고 말함으로써 가혹하게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치료, 249)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쟁투, 489)

“모든 점을 극복한 자들과 모든 시험에 견디어 승리한 자들은 어떤 값을 치르든지 간에 참된 증인의 권고를 주의 깊이 들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며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1증언, 187)

[상고할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만일 자기의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하는 자들이 사단이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속히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 12:9). ...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쟁투, 489)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써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피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浮虛)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쟁투, 489-490)

혼인 예복

[연구범위]

교회증언 5권, 217~223; 실물교훈, 307~319

기억절 :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마 22:11)

서론 :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쟁투, 428)

예복을 검사받음

1.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전에 손님들은 어떤 조사를 받아야 하였는가?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마 22:11)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마 22:11; 계 7:14 참조).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마는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쟁투, 428)

“혼인 예복의 비유를 주의깊이 세밀하게 읽고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라. 진리를 듣고 동의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 진리가 영혼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생애 속에서의 정결의 사업은 수행될 수 없다. 그들의 가족과 이웃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그들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없다.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습관이나 행동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은 자들은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을 대표한다.”(리뷰, 1901.2.26.)

2. 그리스도의 의(품성)이 어떻게 성도들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하더라”(계 19:8)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계 19:8)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엡 5:27)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실물, 310)

“그는[그리스도]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실물, 312)

“그대들은 준비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 의복은 속임과 불순과 타락과 위선을 결코 가리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상과 마음의 의도를 알아낸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눈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창조주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5증언, 220-221)

은혜의 때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사 61:1-3)

마 22:13.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슬피 우는 자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려면 우리들이 표정과 말과 말할 때의 억양까지라도 삼가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의 거래도 믿음과 성실함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백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벗어 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과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화잇주석, 사 61:1, 3)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

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요 14:30)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쟁투, 623)

4. 하늘 성소에서 정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히 9:23),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말 3:2-3)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쟁투, 425)

축복과 실망

5. 하늘 성소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 마치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은 무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죄를 도말 받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파를 도말하소서”(시 51:1)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쳐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행 3:19) 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행 3:20)라.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쟁투, 611-612)

6. 반면에 현대진리를 알면서도 필요되는 품성의 준비를 게을리한 자들은 어떤 실망을 당하게 될 것인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렘 8:20)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나 그 이후의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쟁투, 620)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 줄 ‘늦은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초기, 71)

미련한 처녀

7.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말해보자.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마 25:1, 5, 8)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 되고 만다.”(실물, 411)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 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계발시켜 준다.”(실물, 413-414)

8. 1844년 당시에 어떤 두 부류의 처녀들이 나타났는가? 재림 직전에도 어떤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것

은 어떤 경고가 되는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라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마 25:9-10)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 때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곧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동하여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었다.”(쟁투, 426)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표상되든지 미련한 처녀로 표상된다. … 그들은 예수님의 도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체하였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주의한 생애를 살아왔다. 그들은 진리를 듣고 찬성하였으나, 그것을 실생애에 실천하지 않았다. 은혜의 기름이 등에 공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공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마라나타, 54)

신랑을 맞이함

9. 조사심판이 끝난 후, 모든 죄를 도말 받은 영혼들은 어떤 특권을 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어떤 자들로 비유되었는가?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마 25:10)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고후 11:2)

엡 5:27.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말 3:4)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엡 5:27)는 교회가 될 것이다.”(쟁투, 425)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 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단 7:14; 계 21:2)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 앉’(마 8:11; 눅 22:30)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쟁투, 427)

10.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과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그 날에 어떻게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날 것인가?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사 25:9)

계 6:14~17.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

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 예수님께서서는 강한 정복 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지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 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5-17).

경멸적인 조롱은 그친다. … 이제는 기도의 음성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 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 차라리 산의 바위들 아래 묻혀지기를 바란다.”(쟁투, 640-642)

[상고할 말씀]

“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 까! 나는 우리 앞에 두려운 광경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졸 것 같으면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안다. 그들의 멸망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피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심판을 미리 받고, 기록하는 천사가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받았다고 기록할 수 있게 하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나의 형제자매여, 이 귀중한 자비의 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깨어 있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회개하는 일에 열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황금 기회는 미구에 지나가 버리고, 그대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나타날 것이다.”(1증언, 263)

외방선교사업

12째 안식일에 읽고 13째 안식일에 드려집니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계 14:6)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리고 있는 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설명되어 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일터이며 모든 인간 가족은 그들의 회중(會衆)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바라신다.”(실물, 228-229) 아멘!

주제별 성경교재

발 행 일 : 2015년 12월 14일

발 행 인 : 현대진리연합운동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2길 19 (2층)

010-5297-4810

홈페이지 : www.PTUM.org

e-mail : Help@PTUM.org

가 격 : < 비 매 품 >
